



# 의약품 처방·조제 시스템 구축

이연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재평가부

‘08년도에 1단계 동일요양기관 내 동일처방전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전산시스템의 안정성 등 기술적 문제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면 의·약 관련단체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08년 하반기부터 2단계 동일 요양기관 내 타 진료과목 간 사전점검 시범사업을 하고, ‘10년 이후 3단계 다른 요양기관 간 사전점검 등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구축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들어가며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은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함께 복용」하거나 「특정 연령대」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및 식약청에서 수시로 공고하는 안전성 관련 의약품의 정보 등을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의사나 약사가 처방·조제 단계에서 이를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다.

지난 2004년부터 병용 및 연령금지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공고하고 처방·조제를 제한해 왔으나, 매년 연평균 2만 건 정도가 환자에게 투약되고 있어 국회 등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었다. 그동안에는 진료가 끝난 후 심평원에 심사 청구한 내역을 통해 금기의약품을 투약 받은 환자에게 투약내역을 통보해왔었다. 그러나 환자는 이미 약을 먹고 난 후에야 금기약 복용을 알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이에 2007년 초부터 정부가 주관이 되어 의약단체와 함께 여러 차례 협의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의약품 사전점검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08년 4월 1일부터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었다.

##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은 어떻게 운영 되는가

이 시스템은 의사·약사가 처방·조제하는 약품명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금기여부, 급여중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 해당약품임을 알려주는 알림창(Pop-up)이 뜨게 된다. 이때 의사 약사는 처

방·조제의약품을 변경하여야하며 다만, 환자상태를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해야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심평원에 전송하도록 되어 있다. 원내 처방·조제한 경우 병·의원 등에서는 인터넷으로 전송 또는 팩스·우편 등을 통해 송부하고, 원외처방에 대하여는 약국의 조제단계에서 전송토록 하였다. 또한 환자에게도 금기약제 처방사유를 처방전에 기재하고, 의사가 직접 설명하여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투약이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항간 의료계에서는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도입에 대해 심평원에서 개인건강 정보를 실시간 관리하려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모든 처방내역이 심평원에 전송되는 것은 아니며 부득이 처방·조제된 사유와 해당약제만 전송하게 되는 것이다. 전송된 자료는 진료비 청구명세서 심사 전 발생유형 및 처방·조제된 사유 등을 분석하여 심사 시 신속히 반영하게 된다.

현재 식약청에서는 허가사항을 근거로 금기항목을 공고하고 있으나, 실제 대체의약품이 없거나, 응급 상황 등에서 금기약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환자상태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처방이 필요한 경우 의학적 근거를 명시하여 진료비 청구 시 사례별로 검토하여 인정 가능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또한 심평원은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의 원활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2월부터 상담업무팀을 구성 요양기관의 프로그램 설치, 프로그램인증, 질의사항 응대 등을 지원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향후계획

'08년도에 1단계 동일요양기관 내 동일처방전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전산시스템의 안정성 등 기술적 문제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면 의·약 관련단체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08년 하반기부터 2단계 동일 요양기관 내 타 진료과목 간 사전점검 시범사업을 하고, '10년 이후 3단계 다른 요양기관 간 사전점검 등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구축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의약품처방지원시스템이 계획대로 정착되면 식약청의 안전성문제의약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의사나 약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자체점검 할 수 있게 지원해줌으로써 국민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금기의약품 등을 복용하는 것은 앞으로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의료의 질 및 국민건강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